

가축, 집에서 기르는 짐승

이도현

농축산업은 자연에 있던 생물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사육하고 개량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100 년 사이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먹거리 수요가 증가한 반면 농지는 감소하면서 그 결과 공장형 농축산업이 탄생했다.

주요 논의내용

- 공장형 축산업이 자리잡은 배경과 의미
- 공장형 축산업이 비판받는 여러가지 관점
- 비판에 대처하는 축산업계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장형 축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고 있다. 공장형 축산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층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주의적 입장', '친환경 농업의 입장', '채식주의적 입장', '동물권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환경주의적 관점은 축산업, 특히 돼새김 동물인 소나 젓소를 사육할 때 분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미세먼지가 많다는 점과 물 사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공장형 축산 대신에 방목 등의 목가적 축산을 지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목가적 축산은 사육하는 가축 한 마리 당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나 환경 피해가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축산업계에는 최근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성우농장을 예로 들면, 가축 분뇨에서 메탄가스를 포집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축 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마을의 원예시설에 공급하여 이곳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또한 에너지를 추출하고 남은 분뇨는 액체비료로 재가공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데, 기존의 화학비료를 대체하게 되므로 비용 부담을 덜고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요컨대, 체계적인 물질-에너지 순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도현

돼지농장 대표. 충남 홍성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 (주)성우 대표이사다. 금융 및 ICT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축산업에 뛰어 들었다.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농촌, 그리고 농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기술, 에너지 순환, 마을이 융합할 수 있는 대안적인 농축산업과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농축산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나는 돼지농장으로 출근한다』가 있다.

*** (중략)

공장형 축산에 대한 비판은 주로 풍요로운 국가에서 등장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도달하면서 먹거리 문화가 다양해지고 먹거리 시장에서의 윤리적 소비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궁핍한 시기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했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이력제가 우리 먹거리 시장에 도입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어떤 식재료를 고를 때 그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소비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소비자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우리나라 축산업은 소비자와 더불어 발전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지속 가능성이다. 기후변화 위기로 상징되듯 인류는 산업화와 대량소비로 인하여 전지구적 생태복원의 한계 선상에 있다. 적정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은 축산뿐만 아니라 인류의 경제적 활동 전반에 걸쳐 지향해야 할 전인류적 과제이며, 축산업이 효율성을 높이되 물질-에너지 순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